

건강 칼럼

휴대전화 전자파 뇌종양과 관계 있을까?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남성을 조사한 결과, 불임이 될 확률이 4배 높아지며 정자의 수와 질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이스라엘 연구팀에 의해 발표됐다.

또한 지난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는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무선 주파수의 전자파를 잠재적인 발암물질인 2B 등급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전자파를 포함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다만, 휴대전화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위가 머리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 뇌종양을 비롯한 뇌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과연 사실일까? 정답은 '모른다'다.



조진도

국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휴대전화와의 접촉이 가장 많은 부위가 머리고 특히 통화중에 많은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과 뇌종양의 발생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시행된 연구를 간단히 보면, 국제암연구소(IARC)가 진행한 인체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13개국에 걸쳐 약 6,400명의 뇌종양 환자와 7,800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시간

을 비교분석하여 휴대전화와 암과의 연관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연구 결과, 연구팀은 뇌종양의 발생과 휴대전화 사용시간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하면서도 1.640시간 이상 휴대전화에 노출된 경우에는 약간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시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 사용이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뇌종양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

다. 휴대전화와 뇌종양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가 뇌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에 관한 후향적 연구(지난 사건의 분석을 통한 연구)이며, 설문 조사에 바탕을 둔 연구들은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과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담배가 폐암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1940년대 후반 부터였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휴대전화 전자파와 뇌종양과의 연관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질진 의문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명확한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되도록이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멀리 두거나 통화 시 이어폰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독자제언

범죄 피해자 심리적·경제적 고통 크다

"범죄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대부분의 관심은 범죄자에게 쏠린다. 어떤 성장과정을 거쳤는지,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범죄 후 남겨진 범죄피해자들은 범죄피해의 고통을 혼자서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사건이 일어난 뒤, 범죄자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은 바로 피해자이다.

예를 들어 상해 등 범죄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이어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 고통을 겪고 있고 점점 더 강박적이고 예기적인 범죄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상담, 치료,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막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 유영철사건의 경우 피해가족들은 그 억울함과 충격이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할 수 없고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장일 경우에는 남은 유족들은 생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지원 제도가 많이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어디로 가야할 지를 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음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일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법률지원을 받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전북경찰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중인 전주스마일센터와 협약을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교부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각각의 범죄 유형별로 안내서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만나기만 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도훈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고속도로 과속 2차사고 가능성 매우 높아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이 매우 위험한 것은 2차사고 발생의 가능성이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하는 또 다른 교통사고를 후속사고 또는 2차 사고라고 하는데 2차 사고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2차 사고는 뒤따라오던 차량이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먼저 발생한 1차 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처리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 번째는 운전 중 차량이 고장 나거나 경미한 사고로 정차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신속히 우측차선(고속도로에서는 갓길)으로 이동해 주차시킨 후 차량 안에 탑승한 사람 모두를 반드시 카드레일 밖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차량 안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킨 후에는 안전 삼각대를 후방(주간 100m, 야간 200m)에 세워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이 전방

에 고장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장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 설치와 끝내면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거나 도로공사에 전화해 순찰요원을 요청한다. 경황이 없어 그것조차 생각이 안나다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견인이나 이동조치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리 갓길이라고 해도 정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졸음운전 차량이나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차량이 있을 경우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다. 장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하게 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이에 고속도로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곳이며 또한 운전자가 자기만 편하자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편함으로 최악의 경우 죽음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 남동지구대장 박명선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설

이제 푹푹 뭉쳐 전북 발전 도모를

총선 이후의 지역 분위기가 달라졌다. 푹푹 뭉쳐 전북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이번에는 말로 지역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야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이다. 이제 전북도는 도민의 열망에 제대로 부응해야겠다. 도민들이 지난날 반복해 주문했던 것은 도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북도는 지금의 새로운 열기에 고무되어야 한다. 다들 목도하는 대로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뒤처진 체로 있다. 왜 다른 광역 시도들처럼 안 되는지 유감이다.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하는데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 몫을 행하는 역할적소임을 보여야겠다. 전북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 몫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여러 번 지적했거나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보면 아쉬운 게 하나뿐이 아니다.

푹푹 뭉쳐 전북 발전을 이뤄내

야 한다는 열망은 소중하다. 전북도는 그에 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려면 우리 전북이 인구 하향 고착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이다. 다른 광역 지역은 거주 인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곳은 그렇지 못하다. 전북도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전북도는 새로운 동력을 보여야한다. 열정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전북도는 지금의 새로운 열기를 계속 고조시켜야 한다. 지금의 열기가 쉬 식게 해서 안 된다. 그러려면 예산차별 찾장 속의 태풍같은 모션으로는 안 된다. 지역 발전은 꾸준한 작업이 해야만 한다. 도민들이 전북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결 같다. 발전 초석의 실체를 보여주려면 실력 발휘가 절실하다. 더 많이 증액된 예산을 태내기 위해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추진 작업도 활발해야겠다. 이제 지역적인 단 목소리는 자제하고 푹푹 뭉쳐 한 목소리로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지역 농촌 왜소화 풀어야 할 숙제

지역 농촌 왜소화는 언제고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숙제 풀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농촌의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총선 전에도 말한 바가 있지만 농촌 지역의 인구가 적은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측면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농촌 지역의 살림이 폐쇄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농촌 지역의 경제 문제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 농촌의 인구 유출은 먹고 사는 문제와 교육 문제 때문이다. 그 때문에 갈수록 농촌 왜소화 현상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도내에 20가구 미만의 마을이 1027곳이나 된다는 보고가 나온지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의 현상은 더 심각할 거라는 짐작이다. 농촌 거주 인구의 고령화가 오랜 고민이 되고 있는 터에 왜소화 현상까지 겹치고 있으니 문제이다.

전북도와 동부권의 지자체는 농촌 왜소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

제 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 농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도교육청이 마음을 더 써야겠다는 말이다. 이번에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 호남의 인구가 충청의 인구보다 적은 것은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호남과 충청의 입장이 온통 뒤 바뀌게 될 것이 뻔하다. 농촌의 유출된 인구가 전주나 익산 등 도내 도시권으로 유입되기 보다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농촌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소득기반에 신경을 써줘야겠다.

농촌 지역에도 농업 외에 다른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오래도록 농촌 왜소화가 고민이 되고 있는 중에 동부권 지역이 더 심각해져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총선 때 완주군을 합쳐 한 선거구가 된 중에 세 군을 합쳐도 그 인구수가 완주군보다 한참 적으니 말이다. 이제 전북도와 동부권의 지자체들은 농촌 왜소화 현상을 막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에 대한 보고가 조만간에 반드시 있어야겠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